

서호인의 '소설처럼'



사라진 저녁과 나타난 돼지 -권정민 그림책 '사라진 저녁'

오늘도 배달 음식을 먹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와 목살 스테이크였다. 매운맛이 살짝 감도는 필라프도 같이 시켰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음식이 현관 앞에 놓였다. 문만 뚫고 열고 오늘의 저녁을 식탁으로 들고와 비닐을 뜯고 플라스틱 용기를 열어 그것들을 먹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 기사에게 카드를 내밀고 받으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같은 말들도 주고받았는데 이제 그럴 일도 없다. 음식은 그게 무엇이든 약간 식은 상태로 현관 앞에 놓인다. 지구의 건강을 오랫동안 치명적으로 해칠 비닐 봉지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채로.

것은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다. 저녁 식사는 허기를 달래고 영양분을 보충하는 본능적 행위임은 물론, 하루 내내 일상을 견디다 고생한 사람에게 주는 안식이자 위안이어야 할 텐데도, 즉발, 갑자탕, 돈가스, 보쌈, 감자찌개를 주문한 그들의 표정에서는 일말의 기대감이나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 막 퇴근해서 양말만 벗어 놓은 채로, 마저 끝나지 않은 재택 근무를 하면서, 아기 띠에 아이를 안고서, 홈트레이닝을 하다가 말고, 청소 중에 소파에 누워서..... 각각의 자세로 휴대전화에 골몰하다. 휴대전화에는 방금 배달시킨 저녁이 어느 정도 조리되었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들이 남긴 리뷰에 사장님은 뭐라 답을 달았는지 담겨 있다.

저녁'의 주민들은 처음에는 돼지를 숨겼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먹어 보기로 한다. 살아 있는 돼지를 요리하는 법은 간단하다. 찌는다 → 잡는다 → 나는다 → 굽는다. 이 과정에서 준비물은 물론 인터넷으로 구매한다. 주문한 용품은 바로 다음 날 도착했다. 주민들은 과연 돼지를 잡아 파티를 열어 명실상부 '사라진 저녁'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

당장 모든 사람이 육식을 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신속하고 다양한 배달 음식은 필수적이고 고마운 시스템이기도 했다. 우리는 돼지 한 마리, 닭 한 마리 살지 않는 도시의 아파트에 살며 수많은 돼지와 닭을 먹는다. 우리는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갖가지 음식을 내 집 앞까지 오게 할 수 있다. 너무나 편리한 무언가는 그게 편리한 것인지조차 인지할 수 없게 만든다. 오로지 식용으로 사육되어 목숨을 내놓는 동물들이 있다. 오로지 한 번의 식사를 위해 만들어지고 곧 폐기되는 일회용품들이 있다. 그리고 오로지 맛있고 편리한 저녁 한 끼에 매몰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다. 갑작스레 나타난 살아 있는 돼지는 그 사람들의 일상에 균열을 낸다. 우리는 그 균열을 모르는 척 살아가거나 임시방편으로 땀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균열의 밑바닥을 찬찬히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라진 저녁'은 그 바라봄에 도움을 준다. 저녁을 사라지게 하고, 돼지를 나타나게 하여.

<시인>

배달된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원원이 흐릿한 찜찜함에 시달린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소모된 것은 식재료와 약간의 돈뿐만 아닐 것이다. 자영업자와 배달 기사의 노동력과 조리와 운송을 위한 에너지, 그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가 음식을 구성한다. 우리는 생략한 덕분에 권장량보다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될 것이며, 그것의 상당량은 조미료일 것이다. 설거지는 최소화되었으나 음식을 포장하는 데 쓰인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살아남아 환경에 생채기를 낼 것이다. 찜찜함의 정체는 죄의식이다. 하지만 게으름과 식욕 앞에 죄의식은 재빠르게 숨을 곳을 찾아 온데간데없다. 남은 것은 음식을 쓰레기와 과도한 포만감이 전부다. 그렇게 우리들의 저녁은 사라진다.

권정민 그림책 '사라진 저녁'에서 먼저 눈에 보이는

의료칼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직장인 고질병

먼저 손목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느슨히 편다. 이후 손목을 반대하게 편 후 손가락을 이완시키고, 주먹을 꼭 쥐고, 손목을 최대한 구부려 다섯을 쏜다. 팔목과 손가락을 느슨히 펴고 다섯 세기, 모든 과정을 10회 반복 후 양팔을 옆으로 펴고 5-6초간 흔든다.

식으로 인한 잦은 음주 및 흡연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속 쓰림, 소화 불량, 식욕 부진, 트림, 복부 팽만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위염은 위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위축성 위염은 6배, 장상피화생은 10-11배가량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 위 점막을 자극하는 술이나 담배, 커피, 기름진 음식 등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퇴근 후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스트레스 조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평균 8시간 혹은 그 이상 사무실에서 같은 자세로 일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 90% 정도가 '겪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업무 스트레스, 만성 피로, 운동 부족 등으로 다양한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소화 불량이나 손목·어깨·목·허리 등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각종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는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한 것을 말하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현대인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 운동 부족 등에 의해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치질의 대표적인 증상은 탈항과 출혈로, 탈항이란 항문 주변의 조직들이 항문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항문 부위에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며,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하고, 항문 주위에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안구 건조증은 PC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현대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고질병이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겪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제대로 예방하지 않으면 안약을 계속 넣어도 눈이 뻣뻣해지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치핵의 경우 탈항 증상이 나타남에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며, 배변 중 선홍색의 출혈이 나타난다. 외치핵의 경우에는 쉽게 탈항이나 출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피부 속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형성된 혈액 덩어리인 혈전이 발생해 항문 부위에 통증 및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목을 내민 자세가 지속되면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목을 앞으로 쭉 내민 자세가 거북이 목과 비슷해 거북목 증후군이라 불리는 증상은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모니터 높이가 눈보다 낮을 경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면서 목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생긴다. 목과 어깨가 결리고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긴다면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방치하면 일상생활에서도 거북목 자세가 지속되고 목 디스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병은 방지할수록 악화되기 마련이다. 특정 증상이나 통증을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다. 직장 생활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산책을 해 보자. 또 중간중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각종 고질병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만성 위염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만성 피로, 회

기고



명현관 해남군수

적극 행정이 낳은 나비 효과

보니 근로자들을 오랫동안 고용하고 싶어도 머물 만한 거주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첫 번째로 꼽혔다.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오랫동안 지역에 머물지도 않고 이탈자도 자주 생겨난다는 것이다.

로 확산되는 공직 문화이다.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중앙 부처 등을 발로 뛰며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상향식 공모 사업 추진이라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기숙사 부지 마련을 위해 관내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등 아이디어까지 더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숙사 건립 방안이 수립됐다.

전국 어디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전국 최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은 그렇게 시작됐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중앙 부처를 찾아 다니며, 외국인 기숙사 설립의 필요성을 역으로 제안하였다.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합법화된 시설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은 내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농업분야 266명을 배정받는데 이어 농업 분야에도 130명을 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나비 효과와도 같이 퍼져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의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남군에 202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큰 성과로 이어질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 행정이란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서 법과 제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남군은 전국 최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례로 올해 전라남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군정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써 살피 나가겠다. 적극 행정이 일상 행정이 될 때까지 해남군이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해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어업 군(郡)이다. 그러나 여느 농어촌 지자체가 그러하듯 해남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일손 부족의 문제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내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조차도 귀하신 몸이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국내 근로자를 넘어선 것은 물론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워 수확철이면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농촌이 울 스톱될 수도 있다는 하소연이 공공연할 정도이다.

농업 분야의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실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社說

광주시 뒷걸음질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하겠나

광주시의 출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출산 극복이 자치단체들의 최대 화두인데 광주시만 유독 거꾸로 가는 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 까닭이다.

다. 하지만 똑같이 부모 급여를 받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오히려 출산 지원금을 늘리고 있어 광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시 강남구는 출산 지원금을 최대 일곱 배 가까이 올렸고 광주보다 재정이 열악한 고흥(720만 원→1080만 원)과 보성(240만 원→600만 원) 등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도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에 살다 광주에 정착한 한 예비맘은 광주시가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출생 축하금 제도를 없애고 양육 수당도 절반으로 깎도록 자르기로 한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말인즉, 불과 3개월 전 광주시에 확인할 때만 해도 출생 축하금 100만 원과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하더니 며칠 전 전화해 보니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 축하금을 없애고 양육 수당도 1년치만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감축된 출산 지원금 예산을 손자녀 돌봄이나 입원 아동 돌봄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사회적 약자층인 손자녀나 입원 아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가의 최대 목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광주시의 출생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결정해 데다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사업이 중북된다든 점을 정책 전환의 근거로 들고 있다.

예비 맘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는 출산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결정해 데다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사업이 중북된다든 점을 정책 전환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해 정책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숨통 트인 식수난...그래도 물 절약은 계속돼야

광주·전남 지역의 극심한 겨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력발전용 담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담댐에 공급, 생활·공업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광양 등 다섯 개 시군에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는 현 추세대로 가뭄이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제한급수라는 물은 흘러보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방류 방향을 보성강 본류로 변경해 주담댐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수원인 주담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의 발전을 중단하고, 발전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중 일부를 주담댐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부 농업용수를 제외하고는 가뭄 상황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모든 발전을 중단하고 주담댐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보성강댐 물이 주담댐으로 공급되면 식수난과 용수 부족 해소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광주·전남 지역 강수량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어 내년 3월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30년 만의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각 가정에서 최소 20% 물 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압 조절과 샤워 시간 단축, 양면기 수조에 불병 넣기 등 방법은 손쉽고 다양하다.

보성강댐은 전력 생산을 위해 최근 10년간 상반기에만 दर량만 방면으로 4400만t의 물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방류 방향을 보성강 본류로 변경해 주담댐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물은 주담댐 본댐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여섯 개 지자체에 생활·공업용으로 공급되고, 주담 조절지대에서는 여

수광양 등 다섯 개 시군에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는 현 추세대로 가뭄이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제한급수라는 물은 흘러보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방류 방향을 보성강 본류로 변경해 주담댐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물은 주담댐 본댐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여섯 개 지자체에 생활·공업용으로 공급되고, 주담 조절지대에서는 여

無等鼓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는 가끔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악기사로부터 기증받아 설치한 '레일(Rail) 피아노'다. 전동차 모습 등이 알록달록한 색채로 그려진 피아노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예술품처럼 보인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의 피아노는 시내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귀한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있다. 기타와 하모니카도 배웠다든 할아버지는 이제 막 연습하기 시작한 피아노가 어렵기는 하지만 재미있다고 했다. 어릴 적 집에서 피아노를 치던 딸들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말과 함께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딸 이야기도 들려왔다.

며칠 전 지하철 역사에 들어섰을 때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점은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 멜로디를 가늠하기 어려운, 아주 서툰 연주였다.

피아노 옆에는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는 글귀가 적힌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준다.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 볼 수도 있다.

상무역 피아노

가 거리의 피아노가 신기해 피아노 건반을 쳐 보는 건가 싶었다.

새해를 앞두고 한 해 계획을 세우기 좋은 때다. 올해는 악기 하나 배워 보는 건 어떨까. 함께 모여 노래를 불러도, 그림을 배워 봐도 좋을 것 같다. 최근에는 비싼 수강료를 내지 않더라도 집 근처 주민센터나 도서관을 활용하면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개찰구 앞에서 피아노 쪽을 바라보니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뒷모습은 알핏 50-60대 정도로 보였는데 다가가 연세를 여쭙니 84세라는 답이 돌아왔다. 악보를 바라보며 양손으로 건반을 조심조심 짚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다. 할아버지의 용기도 부러웠다. 화정동에 사는 할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이 곳에서 피아노 연습 중이다. 피아노 교본 '바이엘'을 직접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